



17 수질환경 및 복원연구센터 상

글 김경우 기자·그림 김준



김준 일러스트레이터 겸 만화가입니다. '미디어 디움' '스포츠투서울' 'Paper' '영점프' 등의 다양한 매체에 작품을 연재하였습니다. 함께 취재를 하며 'KIST'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또 왜 지구에 온 거야?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아냐 아냐, 나 이제 착해 졌다구! 나도 이제부터 키스트의 첨단과학을 제대로 배워 볼 거야.



너란 녀석은 믿을 수 있어야 말이지. 하여튼 나쁜 짓 할 생각은 말아!



공...; 어찌지. 두목님이 또 나쁜 짓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너, 요즘 이상해. 자꾸 스틸로 녀석이랑 다니고 말야.



저 녀석, 배만한 게 틀림없습니다! 저번에 흡연로봇에게 고자질한 것도 저 녀석일 걸요?



흞... 그렇다면 네가 이번 임무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너의 충성심을 확인하겠다.



수질환경 및 복원연구센터

수질환경 및 복원연구센터에서는 날이 심해지고 있는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 같지만 사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IA)'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많지만 여름철에만 집중되어 있어 빗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데다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1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또한 하천이 많지만 1급수는 드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실 물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하하, 걱정 마세요. 우리 수질환경 및 복원연구센터가 주축이 되어 연구하고 있는 물 정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깐요. 하지만 먼저 물을 아껴 쓰는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